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2018. 03 [1~3]

화석 에너지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로 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관리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 건축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제로 에너지 주택이 어떠한 방법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에서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6%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 있는 집이 제로 에너지 주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옥상에 설치된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 160m에도 수십 개의 관을 박아 지열을 끌어 올려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전력 회사에 보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한편 제로 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공법을 이용해 에너지를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패시브 공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 다음 영상을 보시죠. 지금 보시는 실험은 제로 에너지 주택에서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창문은 아르곤 가스를 채운 3중창으로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이 설치된 외벽이 무척 두껍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반 주택보다 다섯 배나 두껍게 설계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이뿐만 아니라 ㉢ 이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집 안의 중앙 천장에는 폐열 회수 순환 장치를 설치하여 열 손실을 줄였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더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벌써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②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③ 발표 내용과 관련된 기대감을 드러내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 ④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야겠어.
- ⑤ 중심 화제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유용성과 한계가 함께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2.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패널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을 제시하였다.
- ② 지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지열을 끌어 올리는 장치를 제시하였다.
- ③ 창문의 단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에 이와 관련된 실험을 제시하였다.
- ④ 외벽 구조의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에 두꺼운 외벽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 ⑤ 열 손실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에 폐열 회수 순환 장치가 설치된 실내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3.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자 1 : 집에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이 마음에 잘 와닿았어.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와 어떻게 다른지, 또 '폐열 회수'는 무슨 뜻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어.

청자 2 : 과학 선생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셨는데, 패시브 공법의 내용을 활용하면 좋겠어. 그런데 지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 그리고 발표자가 처음에는 너무 여유 있게 발표를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발표를 마무리한 게 좀 아쉬웠어.

- ① 청자 1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군.
- ② 청자 1은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관련지어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있군.
- ③ 청자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갖게 된 의문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군.
- ④ 청자 2는 발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군.
- ⑤ 청자 2는 발표자가 정해진 발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군.

6.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 인터뷰 내용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할 거니?

학생 1 : 로케이션 매니저분은 _____

- ① 사진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나는 풍경에 따라 사진 촬영 방법과 촬영 시기를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해야겠어.
- ② 직업적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고 하셨지. 나는 로케이션 매니저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 ③ 촬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하셨지. 나는 촬영 장소와 목적에 따라 로케이션 매니저가 담당해야 하는 일들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어.
- ④ 직업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지. 나는 열정과 끈기가 요구되는 다른 직업의 사례를 제시하며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는 데 왜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야겠어.
- ⑤ 멋진 장소를 발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말씀하셨지. 나는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나열하며 이 직업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7. 다음은 (나)를 쓴 후 '학생 1'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내 주신 검토 의견 중 (㉠)해 달라는 말을 고려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로케이션 매니저는 촬영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촬영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를 발견하고 섭외하는 일을 한다. 이 직업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볼수록, 로케이션 매니저가 큰 매력을 지닌 직업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 ①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전망을 추가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은 삭제
- ②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전망을 추가하고,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은 수정
- ③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의의를 추가하고,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은 수정
- ④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은 삭제
- ⑤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은 삭제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 07 [8~10]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동아리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 작성
- 예상 독자 : 동아리 업무 담당 교사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발명 동아리 '사고몽치'의 부장을 맡고 있는 문호영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항상 마음 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점이 없어 불편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저희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미니 자판기를 선생님과 함께 복도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일 기억하시지요? 이처럼 저희 동아리는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아리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물로 제작할 수 있는 '무한 상상실'과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한 상상실이란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기기나 공작 도구가 마련된 공간을 말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무한 상상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고안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시제품을 만들 때마다 인근 대학교의 무한 상상실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시설을 예약하는 것이 어렵고, 이용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무한 상상실이 설치된다면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동아리 학생들도 이 공간에서 다양한 제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두 번째, 발명에서 특허 출원까지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동아리원들끼리 의견을 나누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저희도 열심히 만든 발명품들을 상품화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를 도와줄 전문가가 있다면 발명품의 완성도도 높이고, 발명가라는 꿈에 다가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8. [A]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물음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의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건의 내용의 실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9.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통계 자료

1. ○○광역시 소재 학교 내 무한 상상실 설치율 (단위: %)

| 이유 | 응답률 |
|---------------------|------|
| 동아리 특성에 맞는 활동 공간 부족 | 45.7 |
|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부족 | 40.5 |
| 활동 예산 지원 부족 | 28.4 |
| 동아리 신설 제약 | 15.2 |
| 기타 | 7.0 |

2.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복 응답, 단위: %)

(나) 신문 기사

3D 프린터와 같은 디지털 제작 도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하는데, 최근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이커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교육정책관 ◇◇◇은 미국, 중국 등은 이미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이 진로·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미래 메이커 양성을 위해 발명 및 특허 과정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 인터뷰

발명 활동을 통해 제가 생각해 낸 작품을 제작하며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한 상상실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며 디지털 제작 도구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다른 학생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 주는 발명품을 만들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고 발명 동아리 부장 학생

- ① (가)-1을 활용하여, 학교 내 무한 상상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 주어 우리 학교에도 무한 상상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② (가)-2를 활용하여, 동아리 특성에 맞는 활동 공간의 부족이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임을 밝히고, 발명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③ (나)를 활용하여, 발명품 제작 활동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명 동아리에 대한 지원 확대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임을 언급해야겠어.
- ④ (가)-2와 (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련 지식과 기능을 익혀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 발명품을 상품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부각해야겠어.

10.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A]에 제시된 건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고, 건의 주체와 관련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낼 것.

- ① 발명 활동을 통해 창의적 상상력의 싹을 틔우고 특허 출원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② 우리 학교에 무한 상상실을 설치한다면,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미래의 발명가를 양성해 나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③ 다양한 창작과 공작이 가능한 공간에서의 활동은 저희들의 아이디어에 현실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전문가를 통한 배움은 발명에 대한 흥미와 잠재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 ④ 무한 상상실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발명품을 제작하며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를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끈기와 소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⑤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 03 [11~12]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가령 '국'과 '물'은 따로 발음하면 제 소리대로 [국]과 [물]로 발음되지만, '국물'처럼 'ㄱ'과 'ㄹ'을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ㄱ'이 [ㅇ]으로 바뀐다. 이것은 국어에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화[구과]', '종다[조:타]처럼 예사소리와 'ㅎ'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국어에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ㅎ'의 앞이나 뒤에서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 예를 들면, '국밥'은 반드시 [국빡]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짜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갑자기'로 표기하더라도 발음할 때에는 예외 없이 [갑짜기]가 된다.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존재한다. '(신을) 신고'가 [신:꼬]로 발음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명사인 '신고(申告)'는 [신고]로 발음되듯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비음과 예사소리는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

다. 따라서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국어의 규칙적인 음운 변동 중에는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들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장애음 : 구강 통로가 폐쇄되거나 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이룸.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집념[짐념]도 강하다.
- 춤을 ㉡ 곧잘[곧잘] 춘다.
- 책상에 ㉢ 놓고[노코] 가라.
- 음식을 ㉣ 달기[담 : 끼]가 힘들다.
- 모기한테 ㉤ 뜯긴[뜯긴] 모양이다.

- ① ㉠과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과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③ ㉡와 ㉢는 발음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⑤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가꿈, 어찌
2. 'ㄴ, ㄹ,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잔뜩, 훨씬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몹시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 |
|----|----|
| ㄱ | ㄴ |
| 딱딱 | 딱닥 |

- ①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되므로 '가꿈'은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몹시'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③ '잔뜩'은 '잔닥'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잔닥]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지 않는다.
- ④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표준 발음인 [국수]로 발음되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 ⑤ '잔뜩'은 비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했다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9. 03 [15]

— <보 기> —

- ㉠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 ㉡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 ㉢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 ① ㉠는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 ② ㉡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는 ㉠와 달리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와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4. <보기>의 ㉠~㉣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5. 04B [16]

— <보 기> —

㉠ 雙鵬(쌍조) | 훈 사래 ㉡ 빼니 絶世(절세) 英才(영재) 를 邊人(변인)이 拜伏(배복) ㉢ 흐사븨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독수리가 한 살에 깨이니, 절세의 영재를 변방의 사람들이 절하며 복종하니

雙鵠(쌍작)이 훈 ㉣ 사래 ㉤ 디니 曠世(광세) 奇事(기사)를 北人(북인)이 稱頌(칭송) 흐사븨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까치가 한 살에 떨어지니,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을 북녘 사람들이 칭송하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3장> -

- ① ㉠을 보니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로 'ㅣ'가 사용되었군.
- ㉡을 보니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군.
- ③ ㉢을 보니 'ㅅ', 'ㅍ', 'ㅇ'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군.
- ④ ㉣에서 양성 모음 'ㅏ'와 'ㅑ'가 어울리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에서 'ㅣ' 앞의 'ㄷ'이 'ㅈ'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자료로 삼아 탐구 학습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6A. 사관학교 [15]

—<보 기>—

부르다 [불러, 부르니] 「동사」

[1] 【…을】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누나가 동생을 부른다.

㉢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 응원가를 부른다.

㉦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

㉧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불리다 [불리어(—어/—여)(불러), 불리니] 「동사」

[1] 【…에게】

㉬ '부르다'[1] ㉠의 피동사.

㉭ 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리어 갔다.

㉮ '부르다'[1] ㉢의 피동사.

㉯ 이 노래가 요즘 생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다.

[2] A 의 피동사.

㉺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3] 【…에게 …으로】 【…에게 -고】

'부르다'[3]의 피동사.

㉻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농주로도 불렸다.

- ① A에는 '부르다'[1] ㉢이 들어간다.
 ② '부르다'와 '불리다'는 모두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③ '부르다'[1] ㉢의 용례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를 추가할 수 있다.
 ④ '부르다'[1]의 ㉢, ㉤은 '불리다'를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⑤ '부르다'의 [1]~[3]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2 예시문항 [16~21]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목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여씨춘추』에서는 음악을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씨춘추』에 따르면, 천지를 채운 기(氣)가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가 자연의 기와 공명하여 천지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음악은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어 음양의 작용에 따라 자연에서 생겨나지만,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함을 위해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은 인간의 선천적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음악을 통한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씨춘추』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생(貴生)'의 원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인 욕구에 따라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씨춘추』에서는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일차적인 자연적 음악보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한 선왕(先王)들의 음악을 더 중시하였다. 그리고 선왕들의 음악이 민심을 교화하는 도덕적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는 '사'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로 작곡된 조성 음악으로, 여기에는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음계를 구성하고, 으뜸, 딸림, 버금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조성 음악의 체계는 17세기 이후 지속된 서양 음악의 구조적 기본틀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서양 음악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불협화음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조성 음악으로부터의 탈피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음악들 중의 하나가 표현주의 음악이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예술 사조로서 미술에서

시작하여 음악과 문학 등 예술의 제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다. 표현주의 예술은 소외된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감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사조이다. 표현주의 음악의 주된 특성은 조성 음악의 체계가 상실된 것이며, 이는 곧 '무조 음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당시 쇤베르크가 발표한 음악 프로그램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처음으로 나는 지난 시기 미학의 모든 울타리를 부숴버렸으며, 사명을 띠고 한 이념을 부르짖는다."

무조 음악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는 쇤베르크가 1912년에 발표한 작품 '㉠ 달에 흠뻑 피에로'이다. 이 작품은 상징주의 시인인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에 수록된 50편의 시 중에서 21편을 가사로 삼아 작곡한 성악곡이다.



이 곡의 성악 성부는 새로운 성악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즉 악보에 음표를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음표에 ×표를 하여 연주할 때에는 음높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선율'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피에로로 분장한 낭송자가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를 담은 가사를 읊는다. 또한 기악 성부는 다양한 악기 배합과 주법을 통해 새로운 음향을 창출한다. 이 곡은 무조적 짜임새를 기본으로 하여, 낭송조의 표현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성악 기법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색채적 음향 등을 통해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16.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공통점 | ○음악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그 견해와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함 ㉠ : |
| 차이점 |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음악 작품을 예로 제시함. ㉡ ○(나)와 달리 (가)는 음악을 다른 예술 갈래와 비교함. ㉢ : |

- | | | | |
|---|-----|-----|-----|
| | ㉠ | ㉡ | ㉢ |
| ① | 적절 | 적절 | 적절 |
| ② | 적절 | 적절 | 부적절 |
| ③ | 적절 | 부적절 | 적절 |
| ④ | 부적절 | 적절 | 적절 |
| ⑤ | 부적절 | 부적절 | 부적절 |

17. ㉠에 제시된 음악에 대한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무 큰 소리와 너무 작은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은 적절하지 않은 음악이 된다.
- ② 훌륭한 음악은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 ③ 사람이 음악을 즐기는 것은 선천적인 욕구에 따른 것이니 음악은 사람이 억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음악에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으니 음악을 듣고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면 마음이 쾌적해진다.
- ⑤ 쾌활한 사람이든지 우울한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슬픈 곡조의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슬픈 감정의 상태에 이르는 법이다.

18. (가)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노자(老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하는 데 욕구가 방해가 된다고 보고, 현실 속 음악을 거부하였다. 그에게 최고의 음악은 우주의 근원인 도(道)의 모습을 닮아 거의 들리지 않는 음악이었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상적으로 본 장자(莊子)는 노자와 같이 음악을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음악을 천지 만물의 조화와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음악이 인간의 삶에서 결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그는 의미 있는 음악이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본을 두면서도 형식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선왕(先王)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 ① 노자는 『여씨춘추』와 달리 인위적인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었겠군.
- ② 노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음악이 비롯되었다는 데 긍정적이었겠군.
- ③ 장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선왕들의 음악에 대해 긍정적이었겠군.
- ④ 장자는 『여씨춘추』와 달리 음악에 대한 묵자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겠군.
- ⑤ 장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만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음악을 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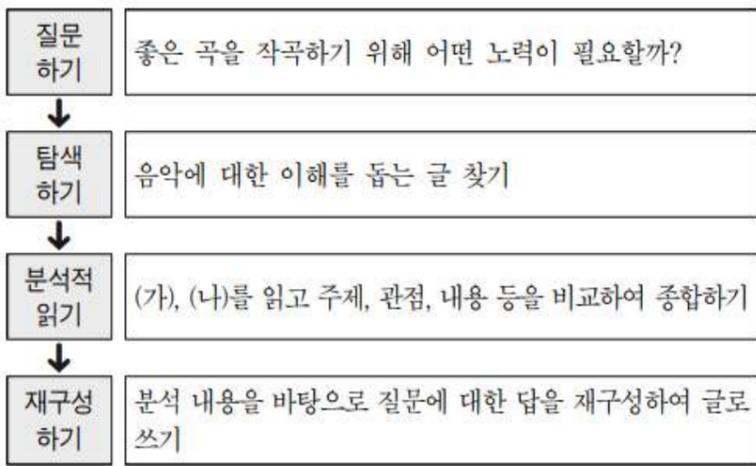
19. 한 이념의 실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성에서 벗어난 무조적 짜임새로 표현하는 것
- ② 음계를 구성하는 7개의 음을 사용한 화음들로 표현하는 것
- ③ 사회 비판과 풍자를 가사에 담아 정확한 음높이로 표현하는 것
- ④ 불협화음을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하여 표현하는 것
- 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

20. ㉠의 관점에서 ㉡을 비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로 표시된 말하는 성악 선율은 주관적인 감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② 피에로 분장을 한 낭송자가 가사를 낭송하는 것은 음악 외적인 것이 개입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다양한 악기의 배합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것은 색채적 음향으로 무조적 경향을 깨뜨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④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따르는 것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성 음악의 체계에서 벗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 중 일부만을 가사로 사용한 것은 전체 작품의 줄거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1.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두 글은 모두 음악이 구조적인 기본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양한 음악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내가 작곡할 때에도 적용해 보아야겠다.
- ② 두 글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제시하였다. 감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③ 두 글은 좋은 음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람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 ④ 두 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음악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작곡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이나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아야겠다.
- ⑤ 두 글은 시대적 상황이 음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책 읽기를 실천해야겠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11. 사관학교 [37~40]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향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어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나)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릿잎 몇 장 더 없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벌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

(다)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었다. 양창곡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보아서 깨닫겠는가.

상자 안에 넣어 두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벽성선이 두 여종을 데리고 달빛을 띠고 이르렀다. 그 아리따운 자태는 달나라 항아가 광한전에서 내려온 듯, 은하수에 직녀가 견우를 찾아온 듯하였다. 양창곡은 정신이 혼날리고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중략)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내 정말 무료하여 그대를 찾아가는 중인데,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벽성선 역시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고 하늘은 개였으며, 달은 밝고 바람은 맑습니다. 객관 차가운 등불 아래 상공의 외로운 회포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양창곡이 흔쾌히 웃으며 함께 별당으로 갔다. 달을 마주하고 여러 잔을 마시는데, 벽성선이 술잔을 들고 갑자기 슬픈 빛을 띠는 것이었다.

양창곡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요?”

벽성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참을 있다가 대답을 했다.

“첩이 청루 생활 10년 동안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상공을 모시게 되어 울적한 심회를 위로할 수 있었지요. 물 위의 부평초 같은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이제 밝은 달을 대하니 한번 둥글어졌다 한번 이지러졌다 하는 ㉠ 저 달을 한스러워합니다.”

“그대는 내가 일찍 유배에서 돌아갈 것인지 늦게 돌아갈 것인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시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첩이 지난번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 꿈을 꾸었습니다.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향해 가시더군요.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홀연 우렛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첩에게 불리하기는 하지만, 상공께선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양창곡이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달 20일은 황상의 생신이오. 황태후께서는 황상을 위하여 매번 이날을 맞으면 방생지에 물고기를 풀어서 살려 주고 천하에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지요. 그대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닌 듯싶소.”

그러자 벽성선이 더욱 놀라며 말했다.

“은혜로운 명령으로 씻어 낸다면 이 어찌 상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기약이 없을 것입니다만,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듣자오니, 남방에 어떤 새는 ‘난(鸞)’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짝이 아니면 울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들어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울다가 기운이 쇠진해져서 죽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록 청루의 친한 인생이지만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공을 모시니 마치 꿈인 듯, 거울 속 그림자인 듯 황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번 날면서 울었으니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부터는 산속에 종적을 감추고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자질구레한 모욕을 면해 볼까 합니다.”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뜻을 알지만 그대는 내 뜻을 알지 못하는구려. 나는 이미 뜻을 정하였어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할 거요. 벽성산 머리의 ㉢ 둥근 달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도록 하여 평생토록 이지러지지 않겠소.”

벽성선이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군자의 말씀은 천금과 같습니다. 첩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 남영로, 「옥루몽」 -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창곡은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 달밤에 벽성산을 올랐다.
- ② 양창곡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벽성선의 자태에 매료되었다.
- ③ 양창곡은 보살에게 받은 책을 여러 번 읽지 않고도 방법을 익혔다.
- ④ 벽성선은 양창곡에게 이별 후에는 자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하였다.
- ⑤ 벽성선은 난새를 언급하며 양창곡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옥루몽」은 천상계에서의 꿈을 통해 천상계 인물인 문창성, 제천선녀, 홍란성 등이 양창곡, 벽성선, 강남홍 등과 같은 지상계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윗글에서 양창곡과 벽성선이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꿈속의 꿈’은 인물들의 정체 암시, 인물들의 행동 유도, 지상계에서 발생할 사건 예시 등의 서사적 기능을 한다.

- ①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천상계의 문창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보살은 장차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사랑하는 인물이 본래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에서 벽성선이 경험한 것은 양창곡이 조만간 사면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 ⑤ ㉡에서 양창곡이 벽성선에게 한 말은 벽성선이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재회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대비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과 ㉡ 모두 비극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은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가, ㉡는 인물이 부정하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 ⑤ ㉠은 인연의 단절에 대한 슬픔이, ㉡는 인연의 지속에 대한 소망이 내포되어 있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6. 10 [20~23]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 : 청원이나 원서를 냄.

29.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② 보통명칭 표장과 관용 표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 ③ 어떻게 하면 보통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 ④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인정받는가?
- ⑤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30. 윗글에 근거할 때,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 ①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이것은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④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거야.
- ⑤ 이것은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31.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김 씨는 특허청에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이 상표로 상품을 생산해 왔다는 자료와 함께 출원 전에 지역 신문에 자신의 상품이 소개되었던 기사, 그리고 특허청의 등록 거절 소식이 전국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심판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

- ①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②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③ 청구인의 상품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④ 청구인의 상표가 처음에는 관용하는 상표였지만 현재 기술적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⑤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32.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상표법 제5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등록 상표를 남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금지권은 유지되므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촉: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가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 ① ㉠과 ㉡는 모두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 ② ㉠은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는 그렇지 않다.
- ③ ㉠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는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④ ㉠은 출원된 뒤부터 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는 출원 이전이라도 해당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⑤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 10 [29~32]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열효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좋다. 하지만 디젤 엔진은 미세 먼지로 알려져 있는 입자상 물질과, 일산화 질소나 이산화 질소와 같은 질소 산화물을 많이 발생시킨다. 이런 물질들은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 광화학 스모그나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 저감하기 위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DPF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에서 ㉣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포집하고, 필터에 쌓인 물질들을 일정 시점에 연소시켜 제거함으로써 필터의 기능을 회복한다.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포집 필터까지 연료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엔진 실린더에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연료가 공급이 되면 배기가스에 연료가 섞여 필터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DPF 방식은 엔진을 특별히 개선할 필요 없이 연료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한 반면 연비가 떨어진다. 또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기술로는 ㉤ EGR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킨 다음, 연료를 배기가스와 함께 연소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다.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까닭은 연료가 낮은 온도에서 연소될 때 질소 산화물의 발생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소 온도를 낮추면 입자상 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EGR 방식은 DPF 방식과 함께 쓰인다. EGR 방식은 엔진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고, 출력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EGR 방식보다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높은 SCR 방식이 개발되어 EGR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 SCR 방식은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지 않기 때문에 EGR 방식보다 엔진에서의 연소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입자상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대신 질소 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SCR 방식은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질소 산화물을 저감한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폭발의 위험이 있고 금속을 부식시킬 수도 있으며 상온에서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풍겨 불쾌감을 ㉦ 유발한다. 그래서 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취급 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CR 방식에서는 요소를 물에 녹인 요소수를 공급하는 요소수 탱크와 공기를 공급하는 압축 공기 주입기를 별도로 사용하여 SCR 장치에서 다음과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요소는 열분해를 통해 암모니아와 아이소사이안산으로 ㉧ 분해되고, 아이소사이안산은 가수 분해*되어 이산화 탄소와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일산화 질소는 이렇게 얻어진 암모니아와 함께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질소와 물로 바뀐다. 그리고 이산화 질소는 일산화 질소와 함께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역시 질소와 물로 바뀐다.

[A]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SCR 장치 내부는 반응 물질을 흡착시키는 백금이나 바나듐 등을 이용한 금속 촉매로 만들어져 있다. SCR 방식에서는 이러한 촉매의 표면에 배기가스가 오래 머물도록 해 주어야 저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공간 속도를 느리게 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공간 속도란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로 나눈 값이다.

SCR 방식은 저감 효율이 높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안고 있다. 암모니아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암모니아 슬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소의 분해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면 고체 형태의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이 ㉨ 생성되어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고착될 수 있다.

*가수 분해: 큰 분자가 물과 반응하여 몇 개의 이온이나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

3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암모니아 슬립 현상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을 고착시킨다.
- ②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데 DPF 방식과 EGR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③ DPF 방식에서는 필터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배기가스에 섞인 연료와 함께 연소시켜 제거한다.
- ④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이산화 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열효율이 높다.
- ⑤ SCR 방식에서 이산화 질소가 저감될 때 일산화 질소가 함께 저감될 수 있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 표는 연소 온도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고, 저감 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 배기가스 온도 (°C) | ㉑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 (ppm) | ㉒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 (ppm) | 저감률 (%) |
|--------------|----------------------|----------------------|---------|
| 190 | 151 | 37.7 | 75 |
| 362 | 176 | 0.89 | 99.4 |
| 388 | 355 | 0.44 | 99.8 |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 ① 배기가스 온도가 190 °C일 때 ㉑로 배출된 입자상 물질은 ㉒를 거치면서 저감되겠군.
- ② a에서 ㉒로 공급된 요소가 ㉒에서 열분해와 가수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될 수 있겠군.
- ③ ㉑를 거치고 남아 있는 입자상 물질은 ㉒를 거치게 되면서 저감되기 때문에 ㉑에 비해 ㉒의 입자상 물질이 적겠군.
- ④ ㉒에서 일산화 질소가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물과 질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b를 통해 공급된 공기가 필요하겠군.
- ⑤ 배기가스 온도가 388 °C일 때 ㉑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가 높은 것은 연료가 높은 온도에서 연소될수록 질소 산화물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겠군.

35. ㉑과 ㉒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㉑과 ㉒은 모두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을 높인다.
- ② ㉑은 ㉒과 달리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엔진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다.
- ③ ㉑은 ㉒과 달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배출한다.
- ④ ㉑은 ㉒에 비해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높다.
- ⑤ ㉑은 ㉒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연료가 연소된다.

36.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속도가 빠르면 장치 내에서 배기가스의 체류 시간이 짧아져 저감 효율이 감소할 것이다.
- ② 금속 촉매의 표면에 단위 시간당 흡착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많을수록 저감 효율은 감소할 것이다.
- ③ SCR 장치 내부에 백금이나 바나듐을 이용하는 것은 공간 속도를 빠르게 하여 저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④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일정할 때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가 클수록 공간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 ⑤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가 일정할 때 공간 속도가 빨라졌다면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줄어든 것이다.

37. a~e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줄이기 위한
- ② b : 생기는
- ③ c : 드러낸다
- ④ d : 나뉘고
- ⑤ e : 만들어져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15. 4월 B형 [31~34]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밀치는 듯
 아무리 구브려도 자빠지니 어이 할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千辛萬苦) 찾아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첨배(汗出沾背)* 무슨 일고
 저 주인의 거동 보쇼 코웃음에 비웃음에
 양반도 하릴없다 동냥도 하시는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는고
 밥 짠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은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번이지 빌진들 매양일까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오리라
 짚 한 단 추려놓고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날**을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못 꼬아서 **손가락**이 부르스니
 하릴없이 내어놓고 자리노*를 배워 꼬니

[A]

천수만한(千愁萬恨)* 이 내 마음 노 꼬기에 부치리라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이 소슬(蕭瑟)하니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잎잎이 추성(秋聲)이라
 새벽서리 지는 달에 ㉠ 외기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금 보고지고
 나래 돋친 학(鶴)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萬里長天) 구름 되어 불러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지고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한출침배(汗出沾背) : 땀이 나와 등을 적심.
 * 종이노 : 종이를 꼬아 만든 끈.
 * 자리노 : 명석 등을 만들기 위해 짚 등을 꼬는 것.
 * 천수만한(千愁萬恨) : 이것저것 슬퍼하며 원망함.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39~40] 윗글과 <보기 1>, <보기 2>를 바탕으로 32번과 3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1>—

윗글은 화자의 독백과 특정 인물과의 ㉠ 대화를 바탕으로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유배지에서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는 한편, 유배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 2>는 윗글에 대한 화답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으로, ㉡ 윗글에서의 고통 받는 화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 대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기 2>—

이보소 손님내야 설운 말씀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聖人)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의 말씀 들어보소
 천지인간(天地人間) 큰 기틀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짜여내어
 하루 한 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움이 뉘 있을꼬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日月蝕)을 되시웁고
 바다에도 진퇴(進退)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
 춘하추동 사시절(四時節)에 한서온냉(寒暑溫冷) 돌아가니
 부귀엔들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功名)엔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변화(繁華)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까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天恩)입어 올라갔네
 - 안조원, 「만언사답(萬言詞答)」 -

39.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글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는 <보기 2>의 '설운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윗글에서 '짚신날'을 꼬는 행위는 <보기 2>의 '고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윗글에서 '손가락'이 부르도록 일하는 모습은 <보기 2>의 '변화'를 겪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윗글에서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보기 2>의 '천은(天恩)'을 통해 해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윗글에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함은 <보기 2>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40. <보기 1>의 ㉠~㉢를 고려하여 [A]의 양면과 <보기 2>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양면은 청자를 훈계하고 있고, [나]는 청자의 힘겨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 ② 양면은 청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③ 양면은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나]는 청자에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양면과 [나] 모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며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양면과 [나] 모두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 ④ 외부 대상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삶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1. 사관학교 [21~24]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군대에 간 아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편지에 쓰기 시작한다.

(가)

먼저 나는 길, 공장의 담, 까마중 열매 다음에 생각나는 건 땅에 반쯤 묻혀있던 노깡*들이야. 사택 앞의 쓸쓸한 가로를 따라서 가축나무가 서 있고, 나뭇가지에는 하늘소벌레가 살았고, 벽돌벽의 어지러운 선전문 자국들, 창고의 탄환 흔적, 그리고 인가 끝에 상두도가 있었고, 실개천을 가로지르며 노깡들이 엇갈려 길게 누워 있었지. 노깡 속엔 우리가 그 무렵에 눈이 시뻘개서 찾아다니던 총알이 많이 나오곤 했었다. 총알을 찾으러 캄캄한 노깡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기절했던 걸 어머니에게서 아마 들었을 거야. 애들이 그 속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며 전혀 접근을 꺼려하길래 어느 날 나 혼자 들어갔지. 안은 아주 비좁구 캄캄했는데 물이 질퍽하게 괴어 있더구나. 손으로 더듬으며 중간까지 가보니까 예상대로 기관포 탄환이 많이 있더랬어. 나는 아이들의 찬탄과 선망을 독차지할 일을 생각하고 온통 가슴이 떨렸어. 탄창 사슬에 끼인 게 한 줄이나 되더라. 나는 정신없이 파구 또 팠지. 한참 동안을 파는데 꺼림칙한 기분이 들구 뭔가 손가락에 걸려 나오는 거야. 나뭇조각인 줄 알았어. 돌보다는 가볍구 나무보단 좀 듬직하단 말이야. 그래 눈앞에 바짝 갖다 대구 들여다보니까 뼈다귀야. 둥그런 관절두 달려 있는 진짜 뼈다귀 말이지. ㉠ 이 크……. 나는 그제 날 잡구 들어지는 기분이더라. 양쪽 입구를 보니까 꼭 관솔 빠진 구멍만큼 보이는 거야. 소릴 지르다가 빠드러졌어. 근처 실개천서 빨래하던 아줌마가 나를 끌어내줬단다. 어머니가 야단쳤어.

“너 그런 데 들어가면 귀신이 잡아먹는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어린애들이 그런 일루 호되게 놀라게 되면 잠잘 때 악몽을 꾸어서 식은땀을 흘리며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 내가 몸이 불편할 때 꿈을 꾸면 말이야, 언제나 그 노깡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느 때는 그제 우리 영단 집의 시멘트 굴뚝 속이 되고, 피뢰침 달린 유리공장의 벽돌도가니 안이 되고, 시궁쥐가 많이 사는 공중목욕탕의 하수도 속이 되는 거야. 끝은 언제나 비슷하지. 양쪽 입구가 무너져, 해골바가지나 뼈다귀 손이 쑥 솟아올라서 내 머리털이나 발목을 말야 팍 잡구 안 놓는 거야. 상두도가집 아이가 그 자리에 찾아가서 침을 세 번 뱉고 왼발로 세 번 구르면 된다고 그대루 했는데두 여영 무서운 기분이 가지질 않았어.

내가 일단 자기의 공포에 굴복하고 승복하게 되자, 노깡 속에서의 기억은 상상을 악화시켜서 나를 형편없는 겁쟁이루 만들고 말았다. ㉢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분이 나타나 나를 훨씬 성숙한 아이로 키워줬지. 눈빛처럼 흰 여학생 칼라 뒤로 얹힌 빗어 묶은 머리를 길게 땅아 늘였고, 목소리가 노래하는 듯 고운 분이었어.

〔중간 줄거리〕 반장이 된 영래는 담임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자기 마음대로 학급 동료들을 부린다. ‘나’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거부감을 느끼나 영래를 두려워하고, 그런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 이때 아름다운 소녀 같은 교생선생님이 오시게 되고, 교생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용기를 얻게 된다.

(나)

그러나 자치회 때의 일로 영래와 종하 은수 그 애들은 선생님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고, 자기네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놀러보려 했던 것이다. 그 애들은 병아리 선생님이 관한 음탕한 욕지거리를 지껄이거나 그이가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일어나 쑥떡을 먹이며 이상스런 몸짓을 하는 거였다.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이 만연되어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어느 산수시간에 뒷자리 아이로부터 내게까지 작게 접은 종이조각이 건네져 왔으며, 펴보고 나서 나는 드디어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종이조각에는 “본 다음에 앞으로 돌릴 것. 임종하.”라고 씌어 있고 밑에다 그이에 관한 욕설에 곁들여 변소에서조차 간혹 볼 수 있는 추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림을 책갈피에 끼워 넣고 시간이 끝나기를 애가 달아 기다렸다. ㉣ 그동안 나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다. 나는 얻어터진다. 머리가 깨어져 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업고 간다. 몇 날 몇 달을 끝없이 간다.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종하가 대견한 짓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쪽으루 다시 돌려라.”

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 “내가 가졌다 왜. 정말 너 이따위 장난만 하거나?”

종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킬킬 웃어댔다.

“그게 니 깔치니?”

“구경했으면 고맙다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이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석환이가 잇달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버려.”

㉧ “이 새끼가…… 맞아 불래?”

종하가 내 떡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은수와 영래가

“뺏아버려, 뺏아.”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각기 떠들었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기가 죽어지내던 장관석이도 종하를 내게서 떼어 밀치면서 말했다.

“애들 때리면 재미적다.”

은수와 종하는 아직도 영래의 행동을 기다리며 씨근거렸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리지두 않고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도 잘못이라구 생각한다.”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도 않구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셋노랑게 질려있었다

“너희들 반장에게…… 이리기냐?”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그만둬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 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 “찢어, 입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 테냐?”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사과 안 하면 몰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말까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 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 때에 딱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뻑 느꼈던 것이었다.

-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

* 노깡[土管]: 시멘트나 흙을 구워서 만든 둥글고 큰 관. 우물이나 굴뚝 또는 배수로 따위에 쓴다.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징적 소재를 주제의 형상화에 활용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③ 섬세한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 경험의 회상을 통해 사건 당시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3.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나)의 사건은 (가)의 사건보다 나중에 일어난 것이다.
- ② (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이 서술하고 있다.
- ③ (나)의 ‘그 애들’은 ‘나’에게 적대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가)는 문제 상황을, (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내적 갈등을, (나)에서는 외적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세가 살아서 아이들을 부리는 고압적인 어조로 말한 것이다.
- ② ㉡은 선생님을 모욕하는 상대의 행동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은 ‘나’의 행위에 용기를 얻어 ‘나’의 주장에 동의함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협박하는 말이다.
- ⑤ ㉤은 상대방의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트라우마(trauma)’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인 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를 가리킨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을 잘 느끼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악몽을 꾸는 경향이 있다.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① ㉠의 경험 때문에 ‘나’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겠군.
- ② ㉡의 악몽은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의 ‘아름다운 분’은 ‘나’의 트라우마 극복을 도와준 인물이겠군.
- ④ ㉣에서 무서운 공상에 시달린 것은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 해당하겠군.
- ⑤ ㉤은 ‘나’가 트라우마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